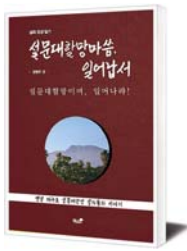


새 책

지역 소멸 시대, 변화를 꿈꾼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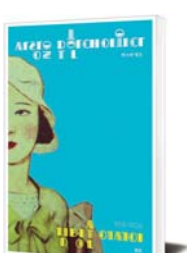
▶설문대할망마춤, 일어남서(장영주 지음)=제주 사람의 기상이며 영원한 대모인 제주의 설문대할망에 관한 심층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저자가 설문대할망과 관련된 책자 18권을 만든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엮은 책이다. 책과나무, 1만3000원.



▶푸른 숨(오미경 지음)=일제의 수탈, 동료 해녀의 죽음, 동생들 뒷바라지, 매년 저승을 코앞에 둔 바다 물질. 영등에게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지만 하도리의 이웃이자 해녀 삼촌, 친구인 춘자, 연화, 옥순이 삼촌, 순덕이, 빌레 삼촌 등과 함께 울고 웃으며 나아갈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 제주, 바다에서 숨값을 치르며 살아가는 해녀들의 아름다운 공존을 담은 이야기. 특별한서재, 1만4000원.



▶사랑은 무한대이다(김명순 지음)=100년 전 나혜석, 김일업 등과 더불어 활동한 선구적인 작가인 김명순이 1918년부터 1936년까지 발표한 에세이를 묶은 모음집으로, 문단의 미더운 시인 박소란이 읽기 어려운 백 년 전의 근대 한글을 현대어로 옮기고 정리했다. 핀드, 1만4000원.



▶마지막 사도(장용민 지음)=미스터리 소설의 대가 장용민 작가의 '신의 달력' 개정판. 국가, 역사를 마구 날라들며 전개되는 거대하고 압도적인 스케일만으로도 숨막히는 와중에 작가는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본질적이고 원초적인 질문의 답을 독자가 스스로 생각하게끔 만들며 작품 속으로 더욱 정신없이 빠져들게 한다. 재담, 1만6000원.



▶법 따라 나이 따라(이순혁 글, 송진욱 그림)=법에서 정해 놓은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연대기 순으로 따져 정리했다. 교육·노동·국방·사법·정치·가족·교통 등 거의 모든 분야에 법이 존재하고 그 법에 따라 기준과 권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계절, 1만3500원.



▶좋아, 싫어 대신 뭐라고 말하지?(송현지 글, 손두부 그림)="좋아"나 "싫어"로만 감정을 표현하는 어린이에게 좀 더 쉽고 재미있게 다양한 어휘를 가르쳐 줄 수 없을까 고민하던 저자는 초등학생 승규의 아침 기상부터 학교생활, 학교, 학원에 서의 시간, 잠들기 전까지 '하루'를 따라 자주 느끼는 감정을 알아봤다. 이야기공간, 1만5800원. 조상윤기자



'프레스텐, 더 나은 경제를 상상하다'

쇠퇴의 길에서 희생한 도시의 놀라운 변화과정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의 시대를 맞으며 영국 북부에 위치한 인구 14만 명의 작은 도시 프레스텐의 상황도 심각했다. 산업 혁명기에 발전한 이 도시는 1970년대 이후 제조업 쇠퇴와 중앙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지역 경제가 추락했다.

그런 프레스텐이 저자인 매튜 브라운이 시의회 의장에 오르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가 추진한 '공동체 자산 구축' 전략이 효과를 보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책 '프레스텐, 더 나은 경제를 상상하다'(원더박스 펴냄)는 프레스텐의 놀라운 변화 과정을 전달한다. 크게 3부로 구성된 책은 지역 사회 변화를 가능케 한

공동체 자산 구축 전략과 협동조합, 내부 조달 등 프레스텐 모델의 핵심 전략 등을 소개한다.

1부에서는 '공동체 자산 구축'이라는 아이디어의 역사와 이를 뒷받침하는 몇 가지 사상을 살펴보고, 2부에선 프레스텐 모델 이야기를 상세히 다룬다. 3부엔 국가 수준에서부터 지역, 도시, 근린 공동체 수준에 이르기까지 영국 전역에서 실행되고 있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사례들이 담겼다.

프레스텐에 영감을 준 클리블랜드 모델과 문드라곤 모델에 대한 정보부터 웨일스의 '기초 경제' 전략, 스코틀랜드 노스에 어서의 사례, 주민 참여 예산 제도 등 정보가 가득하다.

하지만 프레스텐 모델을 설계한 이들은 프레스텐에서 일어난 일이 모든 지역에서 실행 가능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모든



상황에 들어맞는 청사진'으로 여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만 지난 4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제조업이 쇠퇴하고 정부의 긴축 정책과 정치적 무관심 속에서 쇠락해 온 지방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 가운데 가장 확실한 효과를 본 여러 사례를 소개하며 이 전략들을 각 지역에 맞춰 변화시켜 적용할 것을 권한다. 매튜 브라운·리안 존스 지음. 김익성 옮김, 1만6000원. 오은지기자

'귀농부터 완판까지' 부농이 되는 법

신문석의 '부농의 기술 라이브커머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농촌이 변화를 꾀하는 지금, 그 안에서 예비농부, 초보농부, 경륜 농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부농의 기술 라이브커머스'(도도 펴냄)는 귀농부터 시작해 진정한 농업인이 될 때까지의 과정을 통해 농부가 그 안에서 어떻게 살 길을 모색해야 하는지를 연구한 '요즘농부' 신문석의 농사를 잘 짓는 것도 좋지만 돈을 많이 벌었다고 말하는 농부들이 늘어나기를 바라며 집필한 책이다.

저자는 "올해 농사 잘 지었다"도 좋지만 "올해 많이 벌었다!"를 말할 수 있게 이 책이 단 1%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농촌이 소득을 올리기 위해선 라이브커머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저자는 크게 7개 챕터로 나눠 구성된 책에 '귀농 필수전략'부터 '본격 라이브커머스' '고향에도 불어온 라이브 바람' '농촌에 불어온 스마트 바람' '실전 라이브커머스' '바로 써먹는 라이브커머스 꿀팁 5가지' '하면 된다! 라이브커머스' 등의 이야기를 담았다.

출판사는 "귀농부터 농부가 맘을 흘려 생산한 농산물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판매하는 모든 과정까지를 담았고, 더 나은 삶을 희망하는 농부에게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부농이 될 수 있는 길목을 알려주는 책"이



라고 소개한다. 저자는 "라이브커머스의 성패는 오직 꾸준함과 도전이었다"라며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농촌"임을 피력한다. 또 라이브커머스를 너무 잘하려고 욕심부리기보다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라는 조언도 전한다. 2만원. 오은지기자

이 책 '인생당 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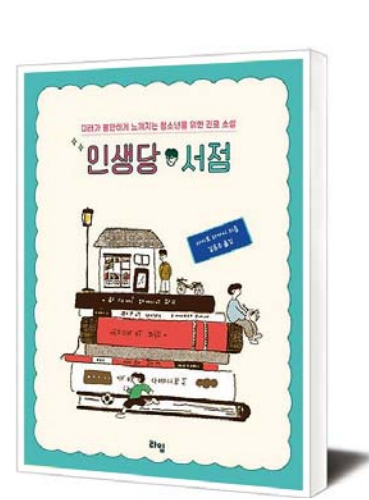
"나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

"나중에 무엇이 되고 싶니?"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마주하는 질문 중 하나다.

의료 기술의 발달로 수명은 길어졌고, 과학 기술의 성과로 인공 지능이 사람의 일을 대체하는 분야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의 삶을 예측하고 진로를 탐색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아이들은 이 질문과 마주하며 자신이 잘할 수 있고, 또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찾아야 하는 것이다. '나 자신'에 대한 탐구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사이토 다카시 교수는 청소년을 위한 진로소설 '인생당 서점'에서 "내 인생은 나 자신의 것이다"라고 외친다. 어느 길로 갈지 선택하는 건 자기 자신의 몫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휩쓸리지 말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몰두하고, '뭔가를 좋아하는 마음'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 것도 당부한다.

어떻게 살아야할지 고민하는 청소년을 위한 진로 가이드... 다양한 각도서 진로 탐색 이끌어



책 '인생당 서점'(라임 펴냄)은 장차 프로 축구 선수를 꿈꾸는 중학교 2학년 '메시'(진짜 이름은 아우)와 화가를 꿈꾸는 고등학교 2학년 '고흐'(히카리) 형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여기에 '인생당'이라는 헌책방을 연 사이토 아저씨가 가세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란 화

두를 둘러싼 삼인 삼색 북토크가 펼쳐진다. 자기실현과 우정, 꿈과 진로, 빈곤과 교육, 예술과 철학, 다양성과 공존, 동경과 사랑, 환경과 인간, 삶과 죽음 등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자양분이 되는 키워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

고민거리가 생길 때마다 '인생당'을 찾는 형제에게 사이토 아저씨는 인생 멘토 역할을 해 준다. 서점에서 못다 한 말을 편지로 써서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의 스펙트럼을 확장하게 만들어 다양한 각도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게 이끈다. 무엇보다 자신의 생각을 강제로 주입하려 들지 않고, 질문을 하나씩 던져 가면서 메시와 고흐가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도록 유도한다. 김윤수 옮김, 1만3800원.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2억원 기획보증보험 가입 | 2억 원 기획보증보험 가입 | 떠나요! 마닐라닐라닐라! 직항전세기 | 제주 ↔ 필리핀/마닐라 3박4일 | 관광 125만원 (미취학아동: 85만) | 골프 159만원 (54H/3조이상 단독) | 항공권 69만원 (한정판매) | 추가좌석 확보 마감임박!! | 02. 25(토) ~ 02.28(화) | 출국 20:45-23:15 | 귀국 16:00-20:30 | 니하오여행사 064-722-6638 | 포함 사항: 왕복항공료, 5성급호텔, 차량료, 한국어가이드, 식사, 입장료, 여행자보험, 그린피/54H, 캐디피&카트피 등 | 불포함사항: (관광)가이드&기사님, (골프)캐디(18홀/\$2), 매너팁, 개인비용 | *전세기의 경우 영국(국토교통부)의 허가에 따라 기재된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